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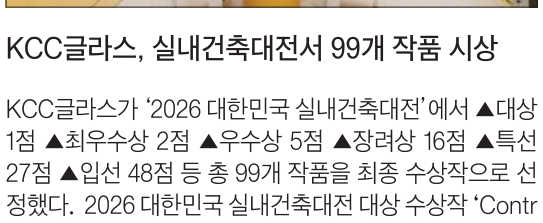
쿠팡, 의료 사각지대 찾아 건강검진 나서

쿠팡이 찾아가는 건강검진 '쿠팡 온동네 케어'를 통해 충남 금산군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4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도 누적 3100명을 넘어섰다.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쿠팡 온동네 케어'에서 문정우 금산군수, 장영철 쿠팡 사회공헌실 전무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BNK투자증권, 발달장애인 금융교육·건강 지원

BNK투자증권이 지역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했다. BNK투자증권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BNK금융



KCC글라스, 실내건축대전서 99개 작품 시상

KCC글라스가 '2026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에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6점 ▲특선 27점 ▲입선 48점 등 총 99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026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대상 수상작 'Controlled Frictional Architecture; 공공주방'. /KCC글라스



아모레퍼시픽,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선포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임직원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와 김진봉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관련업무 담당 임원들이 16일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세계본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창작 뮤지컬 무대 마련

서울 청소년들이 직접 연기와 연출을 맡아 완성한 창작 뮤지컬 무대를 관객 앞에 선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8일과 19일 서울 구로구 구로창의아트홀에서 청소년극단 뮤지컬 발표회 '우리 함께 무대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 '새꿈더하기(+)'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올해 2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우리금융미래재단, 굿네이버스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SK이노베이션, AI로 사회문제 해결할 스타트업 키운다

AI 우수 스타트업 3곳 선정
사업화,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스타트업 3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술 실증을 마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데이 2026'을 개최하고 우수 스타트업 3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에너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AI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후원하고 재단법인 큐네스티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6개 팀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선발된 10개 팀이 약 4개월간 기술 검증과 전문가 멘토링을 거쳤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참여팀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열고 개념검증(PoC) 실행 계획과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SVC Seoul에서 열린 'AI 임팩트 솔루션 데이 2026'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당시 AI·기술 분야 멘토링에는 국내 AI 전문가들과 SK이노베이션 AX단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계획했다.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에서도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해 참여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했다.

대상은 특수학급 교사의 기록·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한 '피어링'이 차지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해 학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AI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안하는 기술이다.

최우수상은 운수사의 에너지 절감과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대기시간 단축을 돕는 AI 배차·경로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한 '샘튼'이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포스트얼라인'은 임상시험과 유사 사례를 분석해 희귀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SK이노베이션은 수상팀에 후속 사업화와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실행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 지원과 임팩트 투자자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추가 실증과 사업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적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올레드 TV, 유럽 7개국서 성능 입증

화면 크기별 평가서 전 부문 석권
화질·음질 경쟁력 인정받아

LG전자 올레드 TV가 유럽 주요 7개국 소비자매체의 성능 평가에서 화면 크기별 27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화질과 음질 등 주요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유럽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는 17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7개국 소비자매체가 최근 발표한 TV 성능 평가에서 42형부터 65형까지 모든 화면 크기의 27개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소비자매체 '위치?(Which?)'는 'LG 올레드 에보 C6'를 42형과 48형, 55형, 65형 등 모든 크기에서 1위로 선정했다. 특히 화면 반사율과 4K HDR·시야각 항목에서는 평가 대상 TV 410개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했다.

벨기에 소비자매체 '테스트-아앙코프'는 'LG 올레드 에보 G6' 65형 제품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테스트 최고' 등급으로 선정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소비자매체도 해당 제품을 65형 부문 최고 제품으로 평가했다.

소형 TV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에보 C6는 유럽 7개국의 42형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자체 발광 방식의 올레드 패널은 화면 크기가 작아져도 높은 명암비와 색재현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LG 올레드 에보 G6'의 라이프스타일 컷 이미지. /LG전자

이번 평가에서는 화질과 음질 외에도 색재현력, 화면 반사율, 시야각 등이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LG전자는 올해 출시한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에 최신 AI 프로세서와 빛 반사를 줄이는 기술을 결합한 '하이퍼 래디언트 컬러'를 적용했다.

유럽은 전 세계 OLED TV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51.8%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OLED TV 시장 점유율도 52.2%로 과반을 차지했다.

전체 TV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OLED TV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69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차현정 기자

인 사 ◆**지식재산처** ◇부이사관 승진△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장 윤기웅△국제협력과장 이승관△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특허심판원 심판장 전범재△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이선우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법무민원팀장 이은정 △지능정보화팀장 이선희 △인공지능통계혁신과장 신우람

부 음 ▲최원숙씨 별세, 조연국·연기씨 모친상, 윤화순·최은주·장혜진씨 시모상, 조재학·재경·재영·재윤·재완(뉴시스 정치부 기자)·재현씨 조모상=마산의료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20분, 장지 창원상복공원. 055-249-1000.

▲ 신영호(향년 94세)씨 별세, 웅길·승길·문길(시사캐스트 부사장)씨 부친상, 안교을·김미숙·김현실씨 시부상 = 16일, 삼육서울병원추모관 2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화장)·서울현충원. 02-2215-4444.

▲이홍세씨 별세, 이종혁(진천군 자치행정국장)씨 부친상=16일, 진천장례식장 102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43-532-4404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주도 AI 혁신

사내 AI 개발 경진대회 개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주도해온 디지털전환(DX)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등 그룹 차원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AI 바이브코딩 해커톤 2026 : 더 세컨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3팀과 우수상 4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기존 사내 BI 경진대회가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활용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임직원들이 현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열린 본선에는 그룹 임직원 24개 팀, 4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구글의 AI 개발 도구 '안티그래비티'와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4 아르곤'을 활용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최우수상은 타이어 디자인, 차량 가속도 분석, 품질·제조 디지털 트윈 등 3개 과제에 돌아갔다. 마케팅본부의 'D-AI'팀은 타이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타이어 디자인 모델러'를 개발했다. 연구개발혁신본부 '로드트윈'팀은 도로 환경에 따른 차량 가속도 분석 도구를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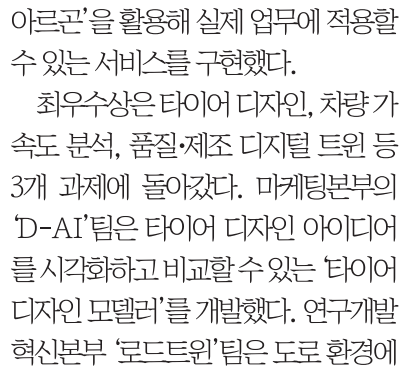
한국GM, 조직 내 다양성 확대 논의

제3회 한국다양성포럼 개최

한국GM이 산업계·학계·공공기관과 함께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GM은 지난 16일 인천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한국다양성협의체(KDC)와 공동으로 제3회 한국다양성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 보이지 않는 차이를 성과(몰입과 혁신)로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포스코이앤씨와 서울대학교 등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 및 한국GM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해 조직 내 다양성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실천하는 다양성 네트워크(DiA),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이 각 조직의 다양성 실천 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관련 도서와 영화 전시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인천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진행된 '제3회 한국다양성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한국GM

/양성운 기자